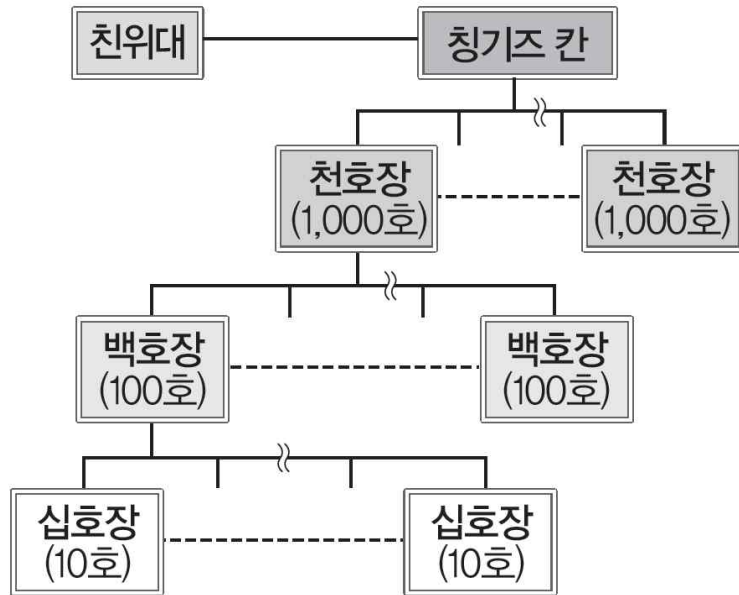


테무친의 부족 통합과 몽골 제국 건설(1206) → 호라즘 정복(1220) → 서하 정복(1227) → 고려 침입(1231 ~ 1270) → 베트남 제1차 침입(1257) → 국호 '원' (1271) → 베이징 천도(1272) → 남송 멸망(1279) → 여·원 연합의 일본 원정(1274·1281) → 베트남 제2차 원정(1284) → 베트남 제3차 원정(바익당 강 전투, 쩌흥다오, 1287) → 멸망(1368)

13세기 초 몽골 초원 지대에서 테무친이 몽골계 부족들을 통합하고 칭기즈 칸으로 추대되었다(1206). 그는 자신의 나라를 예케 몽골 울루스(Ulus), 즉 대원대몽골국(大元大蒙古國)이라 불렀다. 칭기즈 칸은 천호·백호제를 군사적 기반으로 하여 대외 정복에 나섰다. 먼저 서하를 공격하여 조공을 받고 금을 침공하였다. 이어 중앙아시아의 호라즘 왕국을 무너뜨리고 비단길을 장악하였다. 그의 후계자들은 동유럽의 키예프 공국을 점령하여 초원길을 손에 넣음으로써 유라시아를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1231년 오고타이 칸은 몽골 사신 저고여 살해 사건(1225)을 계기로 고려를 침공하는 한편, 1234년 금을 멸망시켜 유목민 세계를 통합하였다. 1270년 쿠빌라이 칸은 고려를 복속한 후 1279년 남송을 정복하여 동아시아 대부분을 지배하였다. 또 고려·몽골 연합군을 조직하여 1274년과 1281년 총 두 차례에 걸쳐 일본을 침공하였다. 그러나 태풍 등의 영향으로 실패하였다. 몽골군은 3차례에 걸쳐 대월(쩨 왕조)을 침공하였지만, 쩌흥다오(1228 ~ 1300)의 활약으로 저지되었다. 그 후 대월의 쩨 왕조는 전쟁을 피하고자 몽골에 조공 사신을 보냈다. 이어 몽골은 자와를 공격하는 등 군사적 위세에 힘입어 해상 교역로(바닷길)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지배 계급	몽골인 약 100만 명
	색목인(위구르족, 탕구트족, 아랍인, 유럽인) 약 100만 명
피지배 계급	한인(거란족, 여진족, 고려인, 화북의 한족) 약 1,000만 명
	남인(강남의 한족) 약 6,000만 명

몽골 제국은 넓은 지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제국 전역에 ★**역참(驛站)**을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중앙의 명령이 제국의 전 지역에 신속하게 전달되었고, 지역의 사정이 중앙으로 보고되었다. 역참 제도는 군사적 목적에서 출발하였으나, 몽골 제국이 안정되면서 교역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몽골 제국의 등장으로 초원길이나 비단길에 동서 교역을 독점하거나 방해하던 국가나 세력이 사라져 동서 교역이 안정되었다. 바닷길을 장악한 원은 항저우, 취안저우 등에 ★**시박사를 설치**하여 동아시아 각지로 항해하는 무역선을 관리하였다. 그리하여 ★**고려, 일본, 대월, 동남아시아를 잇는 동아시아 교역망이 형성**되었다. 동아시아 교역망은 동남아시아를 거쳐 페르시아 만에 이르는 인도양 교역망과 연결되고, 다시 지중해 교역망으로 연결되었다. 교역이 발달하자 단일 화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몽골 제국은 초기부터 ★**교초(交鈔)**를 발행하였다. 특히, 쿠빌라이 칸 때 발행한 교초는 금이나 은과 교환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화폐였으므로, 몽골 제국 전역에서 널리 유통되었다. 동서 교역의 영향으로 문물의 교류도 활발해졌다. 서아시아의 천문학, 역법, 수학, 지도학 등이 원에 소개되었고, 그 영향으로 수시력(授時曆, 1281)이 만들어졌다. 이슬람의 과학은 원을 거쳐 고려에 전해졌고, 조선에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1402)와 『칠정산』(1442) 등을 제작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화약, 나침반, 인쇄술 등도 서아시아와 유럽에 전해졌다



<몽골 제국의 주요 교통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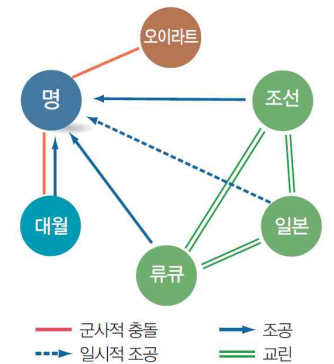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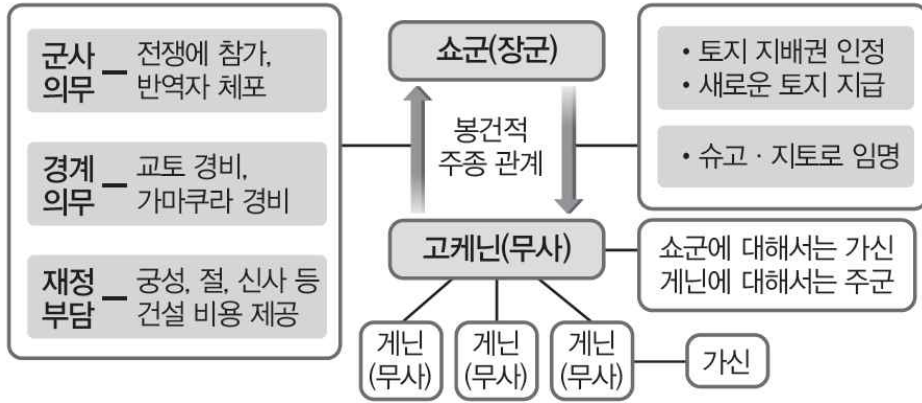
<페이지(폐지)>

▶14세기 이후 국제 관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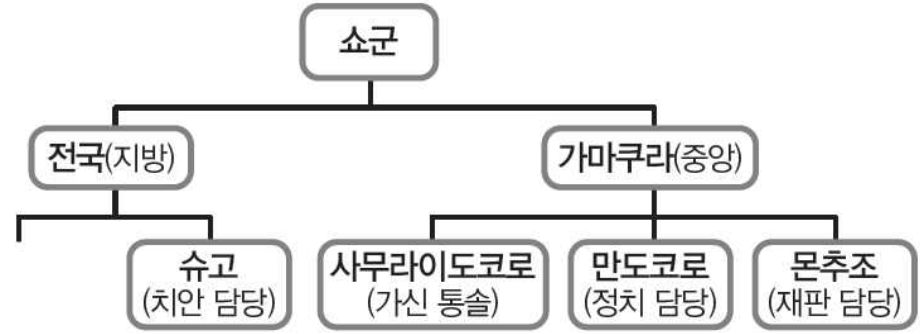
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성적인 재정 부족, 자연재해 등으로 원의 약화 → 백련교도를 중심으로 각지에서 반란 • 명의 건국 ✓ 주원장이 각지의 반란 세력을 통합하고 대도 점령(1368) → 난징을 수도로 건국 ✓ 흥무제(재위 1368 ~ 1398) → 황제 권력 강화, 한족 문화 회복, 향촌 질서 정비
한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민왕(재위 1351 ~ 1374)의 반원 자주화 정책 ✓ 몽골의 풍습 금지, 기철 등 친원 세력 축출, 쌍성총관부 무력 탈환(1356) ✓ 권문세족의 반발과 왜구의 침입 등으로 실패 → 신진사대부 성장 • 조선 건국(1392) ✓ 정도전 등 혁명과 신진사대부와 왜구 토벌 과정에서 세력을 키운 이성계 등의 신흥 무인 세력의 연합
일본 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고다이코 일왕 슌 아시카가 다카우지 → 가마쿠라 막부 붕괴 → 무로마치 막부 성립 ② 고곤 일왕(교토) 對 고다이코 일왕(요시노) → 남북조의 대립 시작(1336) ③ 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쓰(재위 1368 ~ 1394) ↳ 남북조 시대 통일(1392) → 일본 국왕 책봉(1401) → 명과 감합 무역 시작(1404)
북부 베트남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 왕조(1400 ~ 1407) → 후 레 왕조(1428 ~ 1788)

명과 조선이 건국되고 무로마치 막부가 수립됨으로써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가 새롭게 형성되었다. 명은 각지에 사신을 보내 조공을 요구하였고, 조선, 일본, 대월, 류큐 등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조공·책봉 관계가 성립**되었다. 명은 조공 이외의 민간 교역을 철저히 통제하였으므로, 몽골 제국 시기보다 동서 교류와 동아시아 지역 내의 교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사대교린을 추구한 조선은 조공·책봉 관계를 통해 명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일본, 여진, 류큐(1429 ~ 1879) 등과 교류하였다. **일본은 아시카가 요시미쓰가 명으로부터 일본 국왕으로 책봉되었고, 이를 계기로 조공 질서에 참여하였다.** 명의 침공을 물리친 대월에서는 레 왕조가 명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명의 문물을 도입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쇼군과 고케닌의 관계>



<가마쿠라 막부의 통치 구조>



일본 역사의 흐름	
592~709	아스카 시대
710~793	나라 시대
794~1185	헤이안 시대
1192~1333	가마쿠라 막부 시대
1336~1392	남북조 시대
1338~1573	무로마치 막부 시대
1467~1477	오닌의 난
1467~1590	센고쿠 시대
1603~1867	에도 막부 시대



<어·원 연합군의 일본 원정>

신석기	청동기	반랑국	어우락 왕국	남월국	40 ~ 43	응오 왕조	리 왕조	쩐 왕조
풍응우옌 문화	동썌 문화	흥 브엉 건국 동썌 문화 기반	안 즈엉브엉 남월국에 멸망	기원전 203 ↳ 짜에우다 건국 기원전 111년 멸망 ↳ 한9군 설치	쑹 자매의 봉기 후한 광무제의 진압	939년 성립 ↳ 5대 10국의 분열로 독립	1009 ~ 1225 과거제 실시 국호 '대월'	대몽 항쟁 승리 쑹놈 문자 『대월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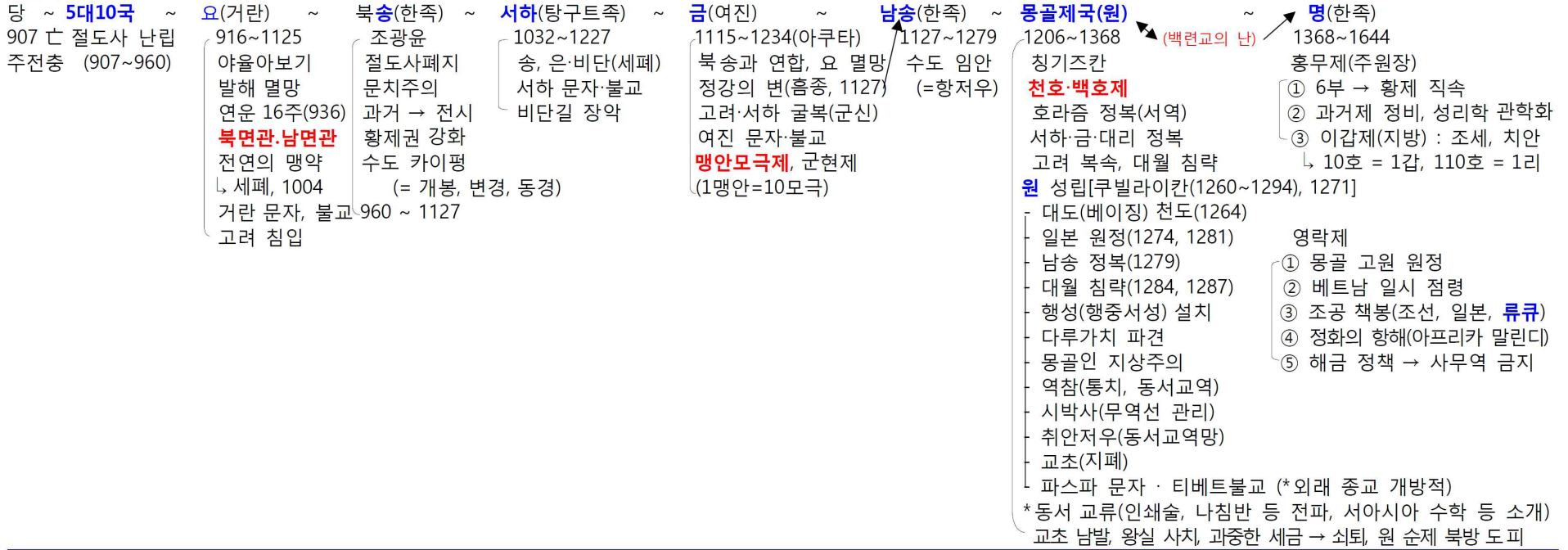
응오 왕조(939 ~ 944) → 딘 왕조(968 ~ 980) → 전 레 왕조(980 ~ 1009) → 리 왕조 성립(1009 ~ 1225) → 문묘 건설(1070) → 과거제 도입(1075) → 국자감 설치(1076) → 쩐 왕조 성립(1225) → 몽고의 제1차 침입(1257) → 『대월사기』 편찬(1272) → 몽고의 제2차 침입(1284) → 몽고의 제3차 침입(바익당강 전투, 1287) → 쩐 왕조 멸망(1400) → 호 왕조 수립(1400) → 호 왕조의 멸망과 명의 지배(1407 ~ 1427) → 후 레 왕조 성립(1428 ~ 1788)

쩐흥다오(1228 ~ 1300)는 쩐 왕조의 장군으로, 3차례에 걸친 몽골군의 침략을 물리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몽골의 제1차 침입(1257) 때 대월의 북방을 굳게 지켰다. 몽골의 제2차 침입(1284) 때는 수도 탕롱(지금의 하노이)이 함락되고 황제(인종, 재위 1278 ~ 1293)까지 항복을 고려하자, 50만 대군에 맞서 최후까지 저항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때 『격장사(檄將士)』라는 유명한 글로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해 몽골군을 대파하고 탕롱을 탈환하였다. 몽골군의 3차 침입 때(1287)는 소수의 병력이었음에도 탁월한 전략으로 몽골군에 대승을 거두었다. 오늘날 베트남 사람들은 쩐흥다오를 베트남의 독립을 지킨 영웅으로 존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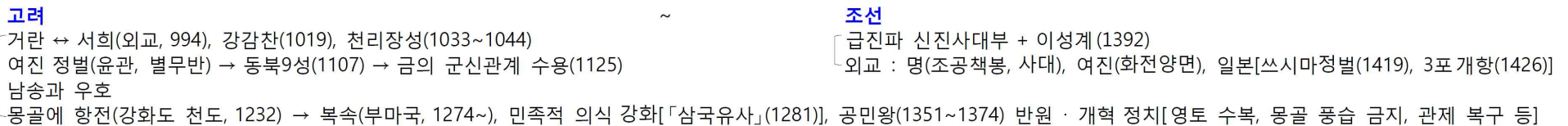


<쩐흥다오 동상(호찌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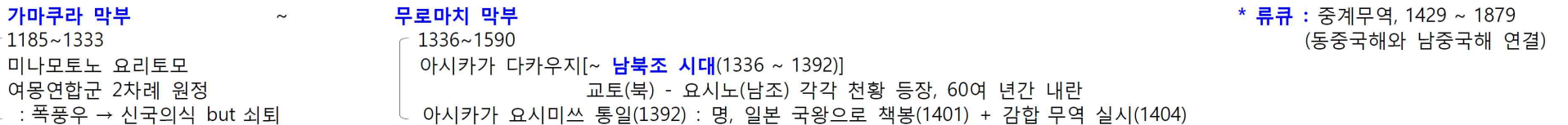
•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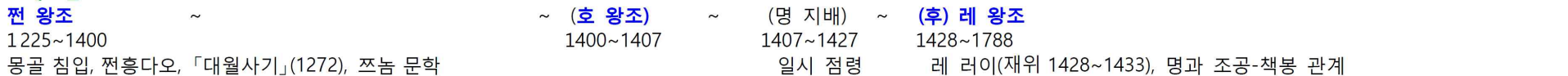
• 한반도



• 일본



• 베트남



개념 Check

- ① 5대 10국의 분열 시대는 조광윤이 세운 ()에 의해 수습되었다.
- ② 918년 한반도에서는 ()가 건국되었고, 936년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 ③ 1004년 송(宋)은 ()과 전연의 맹약을 체결하여 은과 비단을 바쳤다.
- ④ 거란은 이원적 통치 정책을 실시하여 유목민과 농경민을 ()로 나누어 다스렸다.
- ⑤ 1032년 중국의 서쪽 지역에서 탕구트 족이 ()를 건국하였다.
- ⑥ 1115년 아쿠타(阿骨打)는 여진을 통일하고 ()을 건국하였다.
- ⑦ 거란, 서하, 여진 등은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독자적인 ()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 ⑧ 송은 건국 이후 ()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황제권을 강화하려 하였다.
- ⑨ ()의 개혁이 실패한 이후 국력이 쇠퇴한 북송은 금에 의해 멸망하였다.
- ⑩ 1127년 금의 공격으로 북송의 수도 ()이 함락되었으며, 이후 남송이 수립되었다.
- ⑪ 송·원 대에 취안저우 등지에 ()가 설치되어 해상 교역을 관장하였다.
- ⑫ 고려는 ()를 멸망시킨 요에 대해 적대 정책을 펼쳐 요의 침입을 받았다.
- ⑬ 요의 1차 침입 때 고려의 서회는 외교 담판으로 ()를 확보하였다.
- ⑭ 고려는 윤관의 건의로 ()을 편성하여 여진을 정벌하였다.
- ⑮ 베트남 지역에서는 939년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난 () 왕조가 수립되었다.
- ⑯ 1206년 테무친은 쿠릴타이에서 ()으로 추대되었다.
- ⑰ 고려에서는 몽골과의 강화에 반대하여 ()가 끝까지 항전하였다.
- ⑱ 원은 지방에 ()를 파견하여 다스렸고, 고려에도 이들을 파견하여 내정에 간섭하였다.
- ⑲ 칸으로 즉위한 쿠빌라이는 수도를 카라코룸에서 ()로 옮겼고, 국호를 원으로 바꾸었다.
- ⑳ 베트남에서는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민족의식이 높아져 (『_____』)라는 역사책이 편찬되었다.
- ㉑ 일본에서는 몽골·고려 연합군의 공격을 막아낸 후 자국이 신의 보호를 받는다는 ()이 확산되었다.
- ㉒ 1192년 ()가 가마쿠라에 막부를 세우고 천황에게 쇼군 칭호를 받았다.
- ㉓ 가마쿠라 막부는 지방에 토지 관리와 조세 징수를 위해 ()를 파견하였다.
- ㉔ 무로마치 막부가 새로운 천황을 세우자 기존 천황이 피신하여 세력을 유지하면서 ()의 내란이 발생하였다.

▶ 밑줄 친 '나라'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서쪽의 그 나라가 걸어온 역사를 개관해 보면 비록 송으로부터 책봉을 받았고, 송도 또한 세페라 칭하면서 하사해 주고 서조(誓詔)로 답해 주었지만, 모두 일시적으로 나온 말일 뿐이며, 그 마음은 신하로 순종하려는 진실함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원호가 머리를 묶고 군사를 일으킨 지 거의 20년 동안 송은 그의 강함을 꺾을 수 없었다.
- "송사" -

<보기>

- ㉠ 맹안·모극제와 주현제를 실시하였다.
- ㉡ 호라즘을 정복하여 비단길을 장악하였다.
- ㉢ 티베트 계통의 탕구트 족에 의해 세워졌다.
- ㉣ 비단길을 통해 동서 중계 무역을 전개하였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 동아시아 국제 관계의 변천

기원전 2 ~ 3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고조 : ()와(과)의 전쟁 패배 ↳ 화번공주와 물자를 주고 화친 • 한 무제의 정복 정책 : 흉노 정벌, 남월과 고조선 멸망 • 조공·책봉 외교 : 유교적 통치 이념과 ()에 바탕

3 ~ 6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조와 남조 : 주변국과 조공·책봉 관계 체결 : 서로의 사절을 조공 사절로 취급 • 주변국 : 실리를 고려하여 책봉국 선택 : 여러 나라와 동시에 조공·책봉 관계 수립

7 ~ 9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618 ~ 907) : 유목 국가에 ()공주 파견 : 주변국과 조공·책봉 관계 • 돌궐, 위구르, 토번 : 당과 () 관계만 맺으려 함 • 신라·발해 : 상호 교류, 당과 조공·책봉 • 일본 : 견당사(630 ~ 894) 파견

▶(가) 인물이 활동한 시기에 동아시아 각 지역에서 볼 수 있던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대월의 전 왕조 때 활약했던 (가) 장군입니다. 그는 외적의 침입으로 수도인 탕롱이 함락되자 '격장사'라는 격문을 발표하여 병사들의 사기를 높여 외적을 물리쳤습니다. 이후에도 외적의 연이은 침입을 계속 막아 내어 전쟁이 끝나자 그 공으로 대왕에 봉해졌으며, 죽은 후에는 흥다오 대왕으로 신격화되었습니다.

<보기>

- ㉠ 한반도 - 대도로 출발하기 전 국왕을 알현하는 조공 사절
- ㉡ 중국 - 임안을 수도로 새로운 나라의 건국을 알리는 송의 황족
- ㉢ 일본 - 쇼군의 명에 의해 몽골군과 싸우는 무사
- ㉣ 베트남 - 새로 설치된 안남도호부에 파견된 중국 관리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